

야담의 꿈에 나타난 욕망의 실현과 반조(返照)

이 강 옥*

차 례

- | | |
|----------------------|------------------------------|
| I. 서론 | V. 욕망의 실현과 실현 욕망의 반조
(返照) |
| II. 야담에서 꿈이 관찰되는 양상 | |
| III. 욕망의 실현 현장으로서의 꿈 | VI. 결론 |
| IV. 공간을 초월한 보여주기의 꿈 | |

국문초록

야담에 자주 나타나는 꿈 모티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서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폈다.

꿈은 개인의 욕망이나 의지를 담는다. 꿈속에서 주체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거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꿈은 초월적 존재의 힘이나 운명과도 관련된다. 꿈은 현실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조차 용납되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현실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인물이 꿈을 빙자하여 곤경을 극복한다. 예언 혹은 예시에 해당하는 꿈은 사건의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시적 꿈과 해몽의 과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은 첫 단계의 상식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을 재조정하고 재해석하여 반전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 부정적 상황을 낙관적 상황으로 바꾸는 역동적 경험을 하게 한다.

야담에서의 꿈은 서술자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하거나 역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꿈이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게 해주는 양상은 더 다채롭다. 꿈은 동떨어진 두 공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보통 사람이 혼령의 세계를 경험하거나 혼령을 만나는 것도 꿈이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해주기에 가능한 일이다. 꿈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혼령이 소통하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야담 서사에서 꿈은 욕망 및 반조와 관련하여 두 개의 상충된 길을 보여준다. <현초몽용만상폭(現宵夢龍滿裳幅)>에서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욕망 실현을 위한 장치이다. 꿈은 현실에서 불가능할 욕망을 성취시켜줌으로써 서사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꿈은 없던 욕망의 대상을 존재하게 만들어 꿈을 꾸 사람의 행복을 증대시켜주는 ‘형성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험이몽서백식전신(驗異夢西伯識前身)>에서 볼 수 있듯, 꿈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욕망이 충족된 과정과 방법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등장인물이 그간 지내오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쳐 지내온 삶의 대목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꿈은 ‘반조적’이며 ‘성찰적’이다. 이때 꿈에는 사람의 욕망이나 계산이 개입되지 않은 축원이나 염원이 깃들어 있다. 이 두 지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욕망과 관련하여 주체가 상이한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주체가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여전히 간절한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성적 꿈이, 주체가 욕망을 이미 성취한 지점에서 그 과정을 되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반조적 꿈이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야담, 꿈, 욕망, 초월적, 운명, 예언, 예시, 반조, 형성적, 성찰적

I. 서론

야담 작품에는 꿈 모티프가 적잖이 나타난다. 조선 후기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는 데 충실했던 야담 작품이 꿈 모티프를 그냥 삽입하고 있거나 꿈을 매개로 하여 사건을 전개시켜 나갔다는 사실은 다소 뜻밖의 현상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꿈의 경험도 현실의 경험만큼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주고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¹⁾ 환기해보면 꿈 모티프가 야담 서사의 곳곳에 포진하여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서사에서의 꿈은 욕망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욕망 충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조선 후기 야담에 꿈 모티프가 두루 나타난다는 현상은 더욱 자연스럽다. 꿈 모티프의 기능과 본질에 대한 이해는 야담 작품들의 주제를 해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것이다.

현실 반영 양상에 초점을 맞추던 야담 연구가 최근 들어 기이한 환상에 대한 연구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긴 했지만²⁾ 구체적으로 꿈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야담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선이 너무 강하다보니 이런 영역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야담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 꿈과 같은 기이한 모티프의 야담 내적 존재 양상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야담에 자주 나타나는 꿈 모티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서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꿈이 모티프로든 서사장치로든 야담에 나타나는 사례들을 두루 살펴본 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두 사례를 통하여 꿈이 주인공의 욕망을 실현을 이끄는 모티프로서, 혹은 시간을

1) 이강욱, 『꿈 수행과 문학치료 프로그램』, 문학치료연구 제2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47-50면.

2) 정솔미, 『청구야담』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서사장치로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야담 작품 중에서 꿈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들을 망라하여 꿈의 의미와 서사적 기능을 두루 살펴본다. 3장과 4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두드러진 경우를 대변하는 세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2장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꿈 해석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5장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야담 꿈의 기능적 분화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성찰하려 한다.

이 작업은 본격적인 야담 꿈 해석학의 단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때 야담 꿈 해석학은 학문적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다. 야담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한 꿈 모티프의 의미와 기능은 고전소설을 비롯한 다른 서사에 나타나는 꿈 모티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II. 야담에서 꿈이 관철되는 양상

1. 등장인물 차원의 꿈

서사 문학에서 꿈이 중요한 모티프로나 유용한 서사장치로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은 일상적 삶에서 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의 경험과 상상을 담은 설화에서 특히 꿈 모티프를 요긴하게 활용하는데 야담에서도 그러하다. 야담이 이전 설화 작품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꿈 모티프도 변용하였으며, 또 현실에서 경험한 꿈도 반영하였으니 꿈을 활용하는 기법이나 정도는 야담에서 더 진척되었다.

꿈은 꿈 자체로 보아야 하기도 하고, 나아가 서사장치로서 서사 세계 속에서 하는 역할도 따져보아야 한다. 물론 둘은 양분법적으로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다. 먼저 꿈은 그것이 개인의 욕망이나 의지를 담은

것인가 아니면 탁월한 초월적 존재의 뜻을 담은 것인가로 나뉘질 수 있다. 꿈이 개인의 욕망을 담은 것이라는 사실은 프로이트에 의해 강조되면서 더 주목을 받아왔다.³⁾ 꿈에는 본능적 욕망과 함께 의지적 바람도 담긴다. 꿈속에서 주체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거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혹은 꿈을 빙자해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 이와 반대로 꿈은 초월적 존재의 힘이나 운명과도 관련된다. 꿈이 예시 혹은 예언의 기능을 할 때다. 이때 주체는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알아내고 받아들인다.⁴⁾ 예언이나 예시는 조선 후기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다. 하층민들은 자기 삶의 불투명함에서 으레 초월적 힘을 믿는 경향이 강했고, 사대부들은 사회와 당쟁, 전쟁을 거둬 경험하는 과정에서 초월적 힘 혹은 운명을 거둬 떠올렸다. 또 태몽은 현실에서 보통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꿈의 예언에 해당한다.⁵⁾

야담의 꿈은 현실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조차 용납되는 이유를 제공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인물이 꿈을

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입문』, 육문사, 2012, 205-212면.

4) 그런데 이 경우도 과연 문자 그대로 예시의 성격만 있는가는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꿈은 기본적으로 주체의 의지, 욕망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정호준 이야기인 <현초몽용만상폭(現宵夢龍滿裳幅)>(청구야담 상, 51면)에서 이준경의 꿈에 나타나는 단종, 이준경의 딸 꿈에 나타나는 용의 존재가 과연 단종이라는 강력한 혼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여 가능했던 꿈인가? 아니면 단종과 그 왕후들에 대한 제사의 지속을 염원하는 왕족과 정호준 가문의 소망이 투영된 결과이기만 할 것인가? 반면 정호준의 어려운 부탁을 외면한 이준경의 내면의식 속에 존재해왔던 미안함, 불안감, 당혹감의 현현인가? 후자쪽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가 강조했듯이, 어떤 꿈 현상도 일차적으로는 먼저 꿈을 꿈 주체의 의식이나 욕망 차원에서 먼저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꿈을 가능한 한 주체의 의식이나 욕망과 관련시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서사에서 그러하다.

5) 이런 점들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해석해주지 못한다. 프로이트, 『꿈의 해석』, 이환편역, 돈을 새김, 2011, 24면;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 꿈의 심리학』, 도서출판 부글북스, 2009, 111면.

빙자하여 곤경을 극복한다. 또 혼령과 직접 교섭하는 것과 같이 보통 사람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 꿈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가령 <최봉조하규서(崔奉朝賀奎瑞)>(학산한언, 448면)에서 최규서는 고려조 벼슬아치 혼은 만나 그 유택이 아침저녁으로 불에 타고 있으니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최규서는 그 집 주인을 찾아가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라는 전제를 달고 혼의 부탁을 전한다. 꿈을 빙자하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바뀐 신랑>(계서야담, 113)에서 신부는 혼례를 치른 삼일 째 되는 날 다른 신랑과 동침하게 된다. 신부는 부녀의 도리를 떠올리고서 자결해야 마땅했지만 집안의 무남독녀로서 부모를 모셔야 할 형편에 놓여있었다. 이때 신부는 “몽조(夢兆)와 부합함이 있”⁶⁾다며 꿈을 끌어들이는다. 이 대목의 앞뒤 어디에 신부가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없는 걸 보면, 신부가 실제로 꿈을 꾸었다기보다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꿈을 빙자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꿈은 현실의 인물이 상식을 벗어난 난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헤쳐 나가게 해주는 돌파구 역할을 한다.

예언 혹은 예시에 해당하는 꿈은 사건의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 즉 예시는 등장인물에게 그 미래를 알려줄 뿐 아니라, 독자에게도 스토리의 전개를 미리 짐작하게 해준다. 꿈은 예시적 작용을 통하여 등장인물에게 절망을 주기도⁸⁾ 희망이나 자신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⁹⁾

6) “吾有夢兆之符合”(계서야담, 114면)

7) 고대 서구인들도 꿈을 주로 이런 쪽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고대인들은 꿈을 신의 계시로 여겼다. 인간이 정신 활동과 무관한 신의 계시가 꿈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상반된 경향을 낳았다. 미래를 점치게 해주는 예시적 기능으로서의 꿈, 그래서 진실하고 귀중하다고 여긴 꿈과 미혹과 파멸로 이끄는 공허하고 헛된 꿈으로 구분했다. 꿈에 대한 이런 식의 견해엔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서의 꿈’이라는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프로이트, 『꿈의 해석』, 이환 편역, 돌을 새김, 2011, 24면)

예언이나 예시는 명시되기도 하고 암시되기도 한다. 먼저 명시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지나달부터 제 꿈속에 노인이 찾아와 말하기를,
 “나는 백운산 산신령이니라. 너의 천생연분은 백운산 아래 사는 안 아무개니라. 그 사람은 형제가 함께 살면서 아직 배필을 얻지 못하였다. 네가 안씨와 부부가 된다면 평생을 해로하고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¹⁰⁾

여기서 초월적 존재인 노인은 주인공 장취성의 꿈에 나타나 혼인과 관련된 그의 미래를 또렷하게 알려준다. 노인의 예시는 장취성이 그 뒤 삶을 꾸려 가는데 결정적인 길잡이 노릇을 한다. 이런 사례는 고전소설을 비롯한 우리 고전서사 일반에서 ‘초월적 존재의 개입’ 현상으로 명명될 정도로 편재한다.

야담의 서사에서는 예시가 암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잦다. 이때는 알쏭달쏭한 암시를 알아들을 수 있게 풀이해주는 ‘해몽(解夢)’의 방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주목을 끈다. 주로 비관을 낙

8) <고인유몽(古人有夢)>(어우야담, 112면); <정랑유동립(正郎柳東立)>(어우야담, 111면)

9) 곤룡포를 입은 어떤 임금이 환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전각에 임해 있는데, 차식을 오라 하여 절을 하도록 했다. 절을 마치고 탑전에 올라 오르드러니, 왕이 말하였다.

“이전의 제사는 대부분 정성이 없고 또 청결하지도 못해 내가 이를 흠향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예와 정성을 다해 제수를 차려 모두 먹을 만하였으니, 내 이를 가상히 여기노라. 듣건대 너희 집에 병자가 있다 하니 내 장차 너에게 좋은 약을 내려주어 쓰도록 하겠노라.”

차식이 절을 하고 물러나오는 순간, 홀연히 깨어나 보니 곧 꿈인지라 마음 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다.<선왕의 음우를 받는 차식>, 어우야담, 28-29면)

10) <제29화 성 거사 장취성>(청야담수 1, 265면); 그 외 <유대수(俞大修)>(어우야담, 112)에서는 할아버지가 현몽하여 손자로 하여금 거꾸로 눕게 하여 자객으로부터 손자의 목숨을 구해준다.

관으로 전환하는 해몽 관련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가령 <제49화 태조의 왕사 무학대사>(국역 청야담수2, 43면)에서 태조의 독특한 꿈을 소개한다. 어느 날 꿈에 온 동네 닭들이 일시에 울고 집집마다 절구질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태조 자신은 다 허물어진 집안에서 서까래 세 개를 지고 있었다. 얼핏 기괴한 느낌이 들면서 음침한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학대사는 태조가 장차 여러 신하를 거느릴 임금에 되는 꿈이라고 해몽해준다. 이런 해몽은 태조로 하여금 큰 힘이 되었고, 태조는 무학의 조언대로 큰 절을 세우는 등 사람으로서 최선의 정성을 다 들였다. 그래서 해몽대로 실현되었다. <노인(魯認)>(어우야담, 55)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일곱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다. 일본에 억류되어 있을 때 유여평(柳汝宏)이란 사람이 가락지 하나를 얻어 일곱 사람이 서로 다투는 꿈을 꾸었다. 이에 대해 스스로 풀이하기를 “가락지는 둥글게 돌아가는 물건이니 혹 고향으로 돌아갈 조짐인가?”라 하였다. 이런 해몽은 귀환의 의욕을 잃지 않게 하였다. 결국 이 꿈은 탈출 방법을 예시한 것이었다. 유여평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대마도를 통해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지만, 노인(魯認) 혼자 남번으로 들어갔다 중국 복건을 거쳐 귀환하는 우회의 길을 선택했다. 노인이 가락지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꿈은 이중적 함의를 지닌다. 크게는 귀환의 희망을 가지도록 해몽된 꿈이고 작게는 남번, 중국을 거쳐 가는 거창한 스케일의 귀환 방법을 예시한 것이기도 했다. <조고사간휘충관(祖考司諫諱忠寬)>(어우야담, 110면)에서는 해몽자가 꿈을 꾸는 사람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잘 받은 뒤 비관적 꿈에 대해 낙관적 해몽을 해주며 부분적으로 그렇게 실현된다. <고인유몽(古人有夢)>(어우야담, 112면)에서는 자기 꿈을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해석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듯 암시적 꿈과 해몽의 과정은 첫 단계의 상식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을 재조정하고 재해석하여 반전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 부정적 상

황을 낙관적 상황으로 바꾸는 역동적 경험을 하게 한다.

2. 서술자 차원의 꿈

스토리의 전개를 미리 알려주는 예시적 꿈은 『삼국유사』 소재 설화로 부터 구비설화 전반에 걸쳐 거듭 나타났다. 조선후기 야담에 이르러 새롭게 나타난 꿈의 서사적 기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변용은 조선후기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견문(見聞)의 확충은 익숙한 시간관념을 파괴하고 공간적 한계를 넘어설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야담에서의 꿈은 서술자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하거나 역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꿈은 과거를 보여준다. 이 경우 ‘회상’과는 구분된다. 꿈은 회상이 담지 못하는 과거의 영역까지 담아준다. 또 꿈은 미래를 보여준다. 미래의 어떤 장면을 앞당겨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점¹¹⁾에서 미래를 말해주는 예시와는 구분된다. 이처럼 꿈이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적 질서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점은 매우 특별하면서도 소중한 가치이다.

꿈이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게 해주는 양상은 더 다채롭다. 먼저 꿈은 동떨어진 두 공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¹²⁾ 일종이 다원 생중

11) “변들러 들어간 사람이 무슨 일로 나오셨소?”

“조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집안에 불이 나서 몽땅 다 타더구려. 꿈에서 깬 뒤 어찌나 놀랐던지 가슴이 벌떡거리 궁궐 담을 넘어 왔지 뭐요.”

그녀는 거짓 깜짝 놀란 체하다가 다시 정색을 하고 크게 꾸짖는 것이었다.

“꿈의 조짐이 비록 좋지는 않았다고 하나 엄중한 궁궐에서 숙직을 하면서 어찌 감히 어령듯 망령된 짓거리를 한단 말이요? 빨리 돌아가 숙직을 하세요.”(〈제 124화 용산의 차부, 국역청야담수2, 304면〉)

12) 강정대왕(성종)이 성균관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는데, 밤중에 꿈을 꾸니 한 마리의 용이 성균관 서쪽 뜰에 있는 잣나무에 구불구불 서려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 이상하게 여기고 궁노를 시켜 몰래가서 보게 했더니, 한 선비가 잣나무

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동시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꿈은 다른 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하여 꿈에서는 현실에서 찾아가기 어려운 공간도 쉽게 찾아가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보통 사람이 혼령의 세계를 경험하거나 혼령을 만나는 것도 꿈이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해주기에 가능한 일이다. 꿈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혼령이 소통하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준다. 물론 죽은 자의 혼령 중에서는 강력한 힘을 구사하며 역시 담력이 강한 산 사람과 직접 교섭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꿈은 평범한 혼령과 평범한 산 사람이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서 만나고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겠다.

서사에서 꿈이 제 노릇을 하지 못하면 혼령이 귀신의 형태로 산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한다. <아랑전설>, <조현명(趙顯命)>(기문총화. 344면) 등에서 그러한데, 이럴 경우 물론 서사적 흥미와 긴장을 돋우기는 하겠지만, 서로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어색하고 부담스런 상황을 만들게 마련이다. 꿈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의식의 차원에서 일종의 해방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느긋하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꿈은 유명(幽明)의 관계를 원만하고 손쉽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서사세계 속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꿈은 서사 속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의 굴레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겠다. 서술자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 차원에서의 합리성이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시점과 지점에서

아래에서 전대를 베고 발을 잣나무에 걸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용모를 자세히 파악하여 기억해 두었다. 선비를 뵈고 보니 장원에 오른 사람이 최향이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로부터 그 잣나무를 칭하여 '장원백'이라 하였다. 최향은 후에 관직이 상국에 이르렀다.(康靖大王試士于成均館, 夜夢一龍盤屈於成均館西庭栢樹, 覺而異之, 使官奴密窺視之, 有一士枕橐於栢樹下, 加足栢樹而睡, 諦其貌而記, 及取士, 其登壯元者, 卽崔恒觀其貌, 卽其人也. 自此, 稱其栢爲壯元栢, 恒官至相國; <강정대왕시사우성균관(康靖大王試士于成均館)>(어우야담. 222면))

이 경우는 꿈이 예시적 기능도 함께 한 경우이다.

사장치로서의 꿈을 도입하는 것이다.

나아가 꿈은 저승세계와 귀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현실적 인간이 봉착한 공간의 한계를 완전하게 넘어서게 한 것이다. 꿈속에서 사람은 이승과 저승의 공간적 괴리와 생사(生死)의 구분을 넘어서게 된다.

꿈은 주체의 욕망이 창출되고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때 욕망은 프로이트의 관점에 의하자면 성적인 것이지만, 실제 야담 서사에서는 생각이나 염력도 중요하게 개입한다. 그 결과 야담의 꿈은 정보가 전달되거나 욕망이 실현되는 장치로서만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어떤 시공간적 단계에서의 실상을 주체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도 하는 것이다.

요컨대 야담의 꿈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서사장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과 실현된 욕망이 반조(返照)되는 양상을 대조적으로 살핍으로써 야담 속 꿈의 두 가지 전형성을 해명해본다.

Ⅲ. 욕망의 실현 현장으로서의 꿈

야담 작품 속에서 꿈이 가장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현초몽용만상폭(現宵夢龍滿裳幅)>(청구야담 상, 59면)이다.

①해풍군(海豊君) 정효준(鄭孝俊)은 세 번 장가들었으나 모두 상처하고 마흔이 넘었는데 아들이 없었고 또 가난했다. 그는 영양위(寧陽尉)¹³⁾의 증손으로¹⁴⁾ 본가 선조들을 받드는 것 외, 노릉(魯陵)¹⁵⁾과 현덕왕후

13) 영양위(寧陽尉) : 정종(鄭宗, ? - 1461). 문종의 딸 경혜공주(敬惠公主)의 남편. 세조 즉위 뒤 1461년 모반을 꾀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되었다.

14) 정확한 계보는 ‘영양위 정종(鄭宗) - 정미수(鄭眉壽) - 정승휴(鄭承休) - 정원희

권씨¹⁶⁾, 노릉왕후 송씨¹⁷⁾ 등 삼위를 모시는데 제수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②정효준은 이웃에 사는 이진경(李進慶)의 집으로 자주 가서 지냈는데 하루는 이진경의 딸과 혼인하고 싶다 하자 이진경이 화를 크게 내었다.

③이진경의 꿈에 어린 임금이 나타나 딸을 정효준에게 시집보내라 했다. 이진경의 처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 말을 따르지 않자 또 꿈에 나타나 다그쳤다.

④이진경의 처가 계속 반대하자 어린 임금은 처의 꿈에 나타나 회초리질을 하였다. 깨어나 보니 회초리질 흔적이 남아있었다.

⑤다음날 이진경은 정효준을 찾아가 딸을 주겠다고 하였다.

⑥이진경의 딸도 꿈을 꾸었는데 정효준이 용으로 변해 새끼 다섯 마리를 치마폭에 던져주었다. 가장 작은 용은 떨어져 죽었다.

⑦혼인 후 정효준 부부는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벼슬길에 올랐지만 막내는 먼저 죽었다.

⑧정효준이 한 술사를 만났는데, 그가 정효준의 앞날을 예언해주었다. 정효준은 처음에는 궁하다가 나중에 복을 누리리라고 했다.

⑨정효준은 혼인날 전날 밤이면 언제나 꿈을 꾸었다. 첫째 혼인 전날 밤 꿈에 내실에 들어갔지만 신부는 없었고, 두 번째 혼인 전날 밤 꿈에는 신부가 강보에 싸여 있었다. 세 번째 혼인 때의 꿈에는 10여 세의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진경의 딸이었다.

⑩평을 붙였다. “무릇 일들이 모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이진경의 꿈속에서 하교를 내리시던 임금은 단종이었다 한다.”

(鄭元禧) - 정흠(鄭欽) - 정효준(鄭孝俊)이다.

- 15) 노릉(魯陵) : 단종. 1455년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1457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었다.
- 16) 현덕왕후 권씨 : 문종의 비이며 단종의 어머니.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전(權專, ?-1441)의 딸.
- 17) 노릉왕후 송씨 : 단종의 비 정순왕후(定順王后).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玟壽, ?-1547)의 딸. 그녀의 능은 사릉(思陵)이다. 남양주군(南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사릉리(思陵里)에 있다. 숙종 24년(1698) 단종의 복위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추복(追復)되어 능으로 승격되었다.

이 작품은 해주 정씨의 가문 내력담을 바탕으로 한다. 해주 정씨는 단종 폐위 후 단종과 정순왕후 등을 위해서도 외손봉사를 지속하여 세인의 찬탄을 받았다. 단종의 혼령도 현몽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정광연(鄭光淵)이 쓴 <정미수(鄭眉壽)공께서 단종 임금 내외분의 제사를 받든 일>¹⁸⁾은 해주정씨 가문에서 전승되던 가문의 공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중 단종이 꿈에 나타난 대목은 이렇다.

제사지내는 날 새벽에는 늘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현령공(縣令公) 흠(欽)¹⁹⁾의 꿈에 빛나는 구름이 대청에 가득 차며 붉은 기를 앞세우고 젊은 임금이 나타나 말하기를 “너의 집이 4대로 제사를 정성껏 받들었는데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지라 구슬 다섯 개를 준다. 잘 심어 가꾸고 기르라”했다. 공이 묻기를 “이 구슬이 무슨 구슬입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계수나무 열매니라”했다. 공이 받아 품속에 넣고 문득 깨니 방안에 아직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 뒤 지돈령공(知敦寧公) 효준(孝俊)때에 이르러 다섯 아들이 다 문과에 급제하니 과연 옛날 꿈이 맞은 것이었다.²⁰⁾

이처럼 단종의 혼령은 정효준의 아버지 정흠(鄭欽)의 꿈에 나타났다. 단종은 해주정씨의 봉사(奉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는 구슬 다섯 개를 직접 주었다. 구슬 다섯 개의 효험은 정흠의 손자 대에서 나타났다. 다섯 손자들이 다 문과에 급제한 것이다. 그런데 단종이 정흠의 꿈에 나타난 것은 단종의 일방적 결단의 결과이지 정흠이 그것을 원했다거나 정흠의 처지가 그 현몽을 필요로 했기 때문은 아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다.

18) 정광연(鄭光淵), <정미수(鄭眉壽)공께서 단종 임금 내외분의 제사를 받든 일> (해주정씨종친회 사이트 <http://www.hijeong.org/>)

19) 초명은 득몽(得夢), 자는 흠재(欽哉), 호는 송천(松泉)이다. 해림군(海林君) 정승휴(鄭承休)의 손자이고 해녕군(海寧君) 정원희(鄭元禧)의 아들이다

20) 정광연(鄭光淵), <정미수(鄭眉壽)공께서 단종 임금 내외분의 제사를 받든 일> (해주정씨종친회 사이트 <http://www.hijeong.org/>)

이와 비교할 때, 『청구야담』의 <현초몽용만상폭(現宵夢龍滿裳幅)>에 서는 꿈과 현몽이, ‘가난’과 ‘대이음’, ‘혼인’과 ‘봉사(奉祀)’라는 좀 더 실제적인 문제들과 긴밀히 연결되었다. 무엇보다 꿈은 주인공 정효준의 절박한 처지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작품은 초반부에 정효준이 처를 잃고 가난하게 산다는 것, 대가 끊길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 등을 절실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진경 부부의 딸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덧붙인다. 이진경은 정효준과 절친하기는 했지만, 자기 딸을 30 살 이상 차이가 나는 늙은 정효준에게 줄 수는 없었다. 이진경의 딸에게 늙고 가난한 정효준과의 혼인은 불행의 출발일 수 있었다.

이 무렵 단종이 현몽한다. 단종은 구슬을 주어 자손이 현달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몽하여 직접 말을 한다. 단종은 이진경 부부를 욕박질러 그들의 딸을 정효준에게 시집보내게 하려 한다. 이런 강요를 이진경 부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진경 부부와 단종 사이의 대결이 시작된다. 이것이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인 셈이다. 단종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버티는 이진경 부인에게 곤장까지 때린다. 이진경 부인은 꿈 속에서 맞은 흔적을 현실에서 발견한다. 꿈속의 일이 현실에 까지 이어졌다. 그것은 현몽이 현실적 욕망의 문제와 얼마나 강렬하게 연결되었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²¹⁾ 또 꿈에서 맞은 흔적이 현실에 그대로 남아있게 한 설정은 서술자가 꿈속에서의 강요를 그만큼 강조하려 한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이진경 부부는 단종의 강요에 굴복하여 자기 딸을 정효준에게 시집보낸다.

이 작품은 거기다 딸의 꿈을 덧붙인다. 딸의 꿈에서는 정효준이 직접

21) 단종이 이진경 부부에게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강요만 한 것은 아니다. 단종은, 정효준과 이진경의 딸이 혼인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면서 정효준이 ‘큰 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접때 너에게 하교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은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너에게 해는 끼치지 않고 오직 이로움만 줄 사람인 것이다. 내가 누차 하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역했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고! 장차 큰 화를 내리겠노라!”) 이는 단종 현몽에 사람의 욕망이 깊이 관여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등장하여 새끼 용 다섯 마리를 던져주는데 그중 한 마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대목이 위에 언급한 <정미수(鄭眉壽)공께서 단종 임금 내외분의 제사를 받든 일>에서 단종이 대추를 던져주는 장면과 비교된다. 던져주는 주체가 단종에서 정효준으로 바뀌었고 던져주는 대상이 대추에서 탁월한 인재를 상징하는 용으로 바뀌었다. 이와같은 야담식 변용은 야담에 이르러 욕망의 대상이 더 뚜렷하게 구체화되었고 욕망이 실현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욕망이 꿈속으로 반영된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정효준이 혼인할 때마다 꿈에서 본 신부의 모습이 인상적 모티프다. 초혼 때는 신부가 없었고, 재혼 때는 신부가 강보에 싸여 있었고, 삼혼 때는 10살쯤으로 자라났고, 사혼 때에야 비로소 그 신부가 바로 이진경의 딸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정효준의 4번의 혼인은 결국 이진경의 딸과의 만남을 위한 예비적 만남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꿈의 예시적 역할이 절정에 이르렀다. 거기다 술사의 예언까지 덧붙여진다.²²⁾

요컨대 이 작품에서는 꿈과 예언의 장치가 겹겹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모두는 ‘늙고 가난한 정효준의 네번째 혼인’, ‘단종을 비롯한 지존의 봉사(奉祀) 지속’, ‘지극한 봉사를 한 해주정씨 가문에 대한 보은’으로 귀결된다.

이런 일련의 구도는 맨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 요약된다.

무릇 일들이 모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이진경의 꿈속에서 하교를 내리시던 임금은 단종이었다 한다.²³⁾

22) 海豊窮時，適於知舊之家，逢一術士，諸人皆問前程，海豊獨不言。主人曰：“此人相法神異，何不一問？”海豊曰：“貧窮之人，相之何益？”術士熟視曰：“這位是誰？今雖如是困窮，其福祿無窮，先窮後通，五福俱全之人，座上之人，皆不及”云矣。其後果符其言。海豊初娶時，醮禮之夕，夢入一人之家，則堂上排設一如婚娶之儀，但無新婦，覺而訝之。喪妻而再娶之夜，夢又入其家，則又如前夢，而所謂新婦，未免襤褸，又喪妻。三娶之夕，又夢入其家，則一如前夢，而稱以新婦襤褸之兒，年近十餘歲而稍長矣。又喪妻，及四娶李氏門，見新婦，則向來夢見之兒也。(『청구야담』 상, 65-66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단종은 꿈을 통하여 알려주는 역할만 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꿈은 단지 시간적 초월만을 가능하게 하여 앞날의 일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아 꿈이 한 일은 다른 것이다. 이 작품의 서사적 전개과정에는 정효준이 이진경 딸과 혼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장치가 있다. 이 혼인에 대한 이진경 부부의 저항이 너무나 강하기에 그걸 극복하려면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단종의 현몽이다. 단종은 이진경 부부의 꿈에게 나타나서 현실에서 쉽게 용납되기 어려운 노인과 처녀의 혼인을 강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도 그냥 끌어진 말일 수 있다. 노인과 처녀의 혼인의 과정이 지난했고 또 어색한 면이 분명히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어색함을 극복하기에 유용한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작품의 전반부에 서술된 정효준의 가난과 문제 상황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정효준은 ‘봉사(奉祀)’라는 매우 중대한 현실 문제를 안게 되었다. 봉사를 하기 위해 일정한 돈이 필요하고 부인이 있어야 하는데, 정효준은 가난하고 처도 죽었다. 이 작품에서 ‘봉사’는 ‘성의’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상적인 일로 포착된 것이다. 정효준이 느낀 이런 생활의 절박함이 꿈 속 단종의 행위에 투사되었다고 하겠다.

꿈은 주인공의 욕망과 바람이 아주 농후하게 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숨겨지고 꿈의 예시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인공의 다급함이 읽힌다. 그 점은 <정미수(鄭眉壽)공께서 단종 임금 내외분의 제사를 받든 일>의 내용을 <현초몽용만상폭(現宵夢龍滿裳幅)>이 어떻게 변개했는가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복의 사사기법이 거듭 활용되었다. 먼저 이진경 부부의 꿈, 다음으로 이진경 딸의 꿈, 다음으로 술사의 예언, 정효준의 꿈 등의 순서

23) 凡事皆有前定而然也。李兵使夢中下教之君上，乃是端廟云。(『청구야담』 상, 66면)

로 반복되었다. 이 반복은 정효준과 이진경 딸의 혼인과 다섯 아들의 생산 및 영달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4개의 예언 혹은 계시 모티프는 같은 역할을 하는 동일 모티프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런 반복이 서사원리로 선택되었을까? 맨 처음에 단종이 꿈에 나타나 정효준과 그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그 뒤의 모티프들은 단종의 그런 개입이 다만, 단종이 자기 봉사를 지속하게 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효준의 아들들의 영달은 이미 전정(前定)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반복은 욕망을 은폐하고 전정(前定)을 정당한 것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꿈속에 개입한 욕망이 강렬하다.

IV. 공간을 초월한 보여주는 꿈

꿈이 주체의 욕망이 발현되고 충족되는 계기가 아니라 서술 상의 필요에 의해 어떤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서사장치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야담에 나타나는 꿈 현상 중에서 또 다른 특별한 맥락을 형성한다. 꿈이 다만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꿈은 매개장치일 따름이다. 이것은 꿈의 예시적 기능에서 보이는 시간적 초월과는 그 본질이 다른 ‘공간적 초월’이다. <험이몽서백식전신(驗異夢西伯識前身)>에서 그 전형적 사례를 찾을 수 있다.

① 평안감사가 어릴 적에 자기 생일날 밤만 되면 꿈을 꾸었다. 꿈에 어떤 집으로 갔는데 백발 부부가 상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상 아래서 통곡을 하는데 자기는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꿈속 일이었지만 모든 장면과 풍경을 생생하게 다 기억할 수 있었다.

② 평안감사가 되어 부임해 가는데 감영에 조금 못 미친 곳 어느 마을을 지나면서 보니 꿈속에서 간 곳이었다. 재상이 그 마을 그 집으로 가

니 늙은 부부가 맞이해주었는데 꿈속에서 통곡하던 부부였다.

③늙은 부부에게 자식이 있느냐 물으니 어릴 적 요절했다며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는 나면서부터 영특 총명했다.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일취월장하여 모두들 놀라게 했다. 하루는 평안감사 도임 행렬을 보고 ‘사나이 대장부라면 평안감사는 해야지!’하며 탄식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날로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④평안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산해보니 아이가 죽은 날이 자기가 태어난 날이었다.

⑤평안감사는 감영에 도착한 지 3일 후 늙은 부부를 불러 후하게 대접하고 자기 꿈속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영문 근처에 집한 채와 논을 마련해주었다. 늙은 부부에게 아들이 없기에 제위답(祭位烝)을 마련하여 부부가 죽은 뒤 제사 지낼 비용으로 삼게 했다.

⑥평안감사는 그 뒤로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이 작품에서 천민의 아이는 평안감사 되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자기의 신분으로서 평안감사가 못되는 걸 알고 스스로 목숨을 단축하여 일찍 죽는다. 그리고 양반 집안에 환생한다. 양반 집안에 환생한 아이는 결국 평안감사가 된다. 평안감사 벼슬은 전생과 후생에 걸쳐 아이의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환생한 아이가 평안감사가 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다. 아이가 평안감사가 되는 데는 신분만이 문제된다고 본 것이다. 천민인 아이는 아무리 능력이 빼어나도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감사가 될 수 없다. 환생한 아이는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과거에 급제하고 그래서 누구나 흠모하는 평안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환생에 의한 양반 신분의 획득이 아이가 평안감사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기에 이 과정에는 꿈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 아이는 다만 환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작품은 아이가 평안감사가 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전생 아이의 서당 공부 장면, 평안감사의 행차를 보고 낙담

하는 것,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죽는 것 등이 서술된다. 이 지점에서 시간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과거-현재-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의 엄연한 질서일진대 현실의 인간은 누구도 이 시간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갔다. 이런 시간의 역전 혹은 시간의 초월이 꿈이 아니라 늙은 노인의 자기진술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반부에는 또 다른 시간의 역전이 있었다. 평안감사가 어릴 적부터 꾸는 꿈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평안감사는 스스로 진술하지 않고 서술자가 평안감사의 꿈 내용을 대신 서술해준다. 평안감사는 어릴 적부터 자기 생일날 밤마다 꿈을 꾸다. 꿈의 장면은 해마다 비슷했는데,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다. 알고 보니 그 장면은 바로 늙은 부부가 일찍 죽은 아이를 위해 지낸 제사의 장면이었다. 즉, 위 서사단락 중 ②와 ③이 연결되는 것이다.

②와 ③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 것은 노인의 자기진술과 평안감사의 꿈 회상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은 평안감사가 자기 생일날 꾸는 꿈의 장면이 전생 부모의 제사 장면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생 부모는 제사를 지내면서 아이의 요절을 애달파하고 그렇게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빌었지, 아이로 하여금 평안감사가 되어 달라고 염원하지는 않았다. 제사의 장면에는 전생 부모의 간절한 애모와 추모의 마음만이 깃들어 있다. 전생부모의 그런 간절함이 평안감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다. 전생부모가 **아이**를 간절히 그리워했기에 그 제사상 앞에 평안감사가 앉게 된 것이다. 전생부모의 간절한 추념이 아이의 후생인 평안감사의 ‘잠재 꿈’²⁴⁾을 생성하고 마침내 꿈으로 현현하게 한 것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추념은 그렇게 강

24) ‘잠재 꿈’을 ‘현현(顯現) 꿈’으로 대치하는 작업이 꿈의 작용이다.(프로이트, 이규환 옮김, 『정신분석입문』, 육문사, 2012, 259-275면) 야담에서 이런 작용이 나타나는 양상은 별고를 통해 밝힐 것이다.

렬하고 형성력이 큰 것이었다.

부모의 간절한 추념이 제사의 장면을 서울과 평양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현현되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이 작품에 꿈이 생성된 궁극의 원동력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꿈에는 자기 욕망이 개입되지 않았다. 꿈은 동떨어진 공간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꿈이 없었다면 평안감사와 전생 부모는 만날 수 없었다. 만나도 서로의 관계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의 꿈은 전생과 현생, 평민과 상층양반 사이의 관계 맺기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은, 현실에서는 그런 계기를 찾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꿈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어 서사의 비약을 이루어내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두 생애 걸쳐서 결국 평양감사라는 욕망을 성취했다. 환생과 꿈이 그 과정에 개입했는데 둘 중 주도한 쪽은 환생이지 꿈은 아니다. 아이는 평양감사가 될 수 있는 양반의 신분을 환생을 통하여 획득했다. 그 과정에서 꿈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다음 생애에서 평양감사가 되었지만, 이 사실은 이생에서는 결코 평안감사가 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응변하는 것이다. ‘환생’은 그만큼 이생에서의 철저한 계급적 차별을 전제하는 것이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분 상승은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이생의 질서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현실 질서의 엄격함은 한정된 시간 동안의 꿈으로써는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강고한 것이다.²⁵⁾

이런 환생과 대비할 때, 여기서의 꿈은 훨씬 인간적이다. 꿈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은 환생이

25) 이 작품은 일상에서 상하층 계급이 겪게 되는 일상적 감정을 절실하게 잘 포착하고 있다. 양반은 환생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계기를 가졌다. 『금계필담』의 끝에, ‘佛家所謂輪回與還生之說 信不誣矣’라 한 것만 보아도 그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하층민의 경우, 자기 현실의 한계에 대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나 기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유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제사가 과연 필요한가 회의도 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 제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실을 벗어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꿈은 이곳에서의 제사 장면을 저곳에 사는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곳의 천민과 저곳의 양반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고 마침내 부모 자식 관계를 인정하게 만든 것이다. 환생보다 꿈은 현세적 소통의 정신을 더 잘 담는 서사장치인 것이다.

평안감사라는 최고 실력자가, 이름 없는 하층민 늙은 부부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다는 장면에서는, 계급 간 상호 배려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 현실에서 평안감사는 한 고을의 최고 어른으로써 백성들로부터 봉양을 받는다. 반면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 평안감사는 늙은 부부의 전생 아들이며, 현생에서의 삶을 꾸러가고 사후 제사를 봉행할 방도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계급 관계의 역전을 읽을 수 있다.

전생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전생 부모는 생계를 꾸러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죽은 뒤에는 제사를 받들어줄 자식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스스로 내세우거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았다. 오직 죽은 자식을 안타깝게 추념하는 제사만을 지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꿈의 장면으로 나타났다. 어떤 욕망이나 계산도 개입되지 않은 꿈의 장면 덕에 전생부모는 평안감사를 만났고, 평안감사는 전생부모의 제사 문제를 해결해주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 작품의 귀결점이기도 하다. 여기서의 꿈은 욕망 개입 없는 만남, 욕망 개입 없는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피실적로진재절간(被室謫露眞齋折簡)>(청구야담 권4)을 대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廣州)의 한 조대(措大)는 지체가 낮고 가난하였다. 아내가 생계를 꾸러가는데 그 도움으로 한양에 삼십 여 년 간 출입을 했지만 한양의 어떤 관인과도 안면을 트지 못했다. 조대는 부질없이 돈만 축냈다는 아내의 추궁에 견디다 못해 거짓말을 한다. 사실은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가 평안감사가 되면 한 밀천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둘러대었다. 그 말에 아내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시루떡을 차려놓고 ‘아무개를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사이다.’라며 하늘에 간절히 축원하였다. 이때 축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먼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점진적으로 그 축원의 내용이 실현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다음으로 동시에 그 축원의 장면이 축원의 대상에게 보여지게 한다. 후자가 평안감사의 꿈으로 나타났다.

평안감사는 옥당(玉堂)시절 이후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꿈속에서 어느 집으로 갔다. 양반집 같은데 부인이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맑은 물로 시루떡을 찌서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축원을 하는 것이었다.

“아무개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아무개는 바로 자기의 이름이었다.²⁶⁾

어떤 인물의 축원 혹은 생각하기는 강력한 형성력을 가지기에 동시에 그 광경이 축원의 대상에게 전해지는데, 꿈은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가장 알맞은 장치가 된다. 이 작품의 꿈에는 축원자인 부인의 욕망이 은근히 개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남편의 친구가 평안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한 것은 남편의 영달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꿈에 부인의 욕망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험이몽서백식전신(驗異夢西伯識前身)>과 구분되지만 적어도 그런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부인이 축원한 것은 자기 남편이 벼슬을 얻도록 해달라거나 부자가 되게 해 달라거나가 아니라, 남편 친구가 평안감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간을 초월한 꿈의 보여주는 이기적 욕망이 언표되지 않는 축원이나 염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6) 蓋西伯自玉堂之後，每以朔望，夢至一家，見一班家，夫人精潔沐浴，清水餽餅，合手祝天曰：“使某人爲平安監司。”云。某人卽自家姓名也(『청구야담』 상, 435면)

V. 욕망의 실현과 실현 욕망의 반조(返照)

이상의 논증에 의하자면, 야담에서 꿈의 성격은 다양하고 그 기능도 단일하지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꿈 형성의 출발점을 따져서 양분하면, 초월적 존재나 힘의 뜻이 관철되는 계기로서의 꿈과,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모티프로서의 꿈으로 나눌 수 있다. 초월자는 사람이 지배될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초월자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어색하고 불편하다.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야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현몽의 방식은 초월자가 서사에 개입하는 편하고 적절한 방식이다.

사람은 초월자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은 사람의 삶을 규정하고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시간과 공간이 사람을 규제하지,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규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매우 제한적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역시 한계가 있다.

꿈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한다. 사람에게 꿈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된 일종의 해방구인 것이다. 허구적 상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서사에서 꿈이 모티프로나 서사적 장치로 널리 활용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꿈은 예시적 기능을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꿈은 이질적 공간의 장면을 동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게 한다.

프로이트가 꿈이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듯, 야담의 꿈도 주체가 가진 욕망의 충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때의 꿈은 등장인물이 자기 욕망을 투영시킨 사유화된 것일 때도 있지만, 서사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사 장치가 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서술자와 관련된다. 서술자는 원활한 서사 전개를 위해 꿈을 활용

하는 것이다.

야담 서사에서 꿈은 욕망 충족 및 반조(返照)와 관련하여 두 개의 상충된 길을 보여준다. 첫째, 정효준 이야기인 <현초몽용만상폭(現宵夢龍滿裳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욕망 실현을 위한 장치이다. 꿈은 현실적 욕망을 실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면서 욕망 실현의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꿈이라는 모티프가 없다면 욕망 실현의 과정도 결과도 불가능할 정도다. 꿈은 현실에서 불가능할 욕망을 성취시켜줌으로써 서사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이때 꿈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구사하는 힘이나 의지와 다르지 않다. 꿈은 없던 욕망의 대상을 있게 만들어 꿈을 꾸 사람의 행복을 증대시켜주는 ‘형성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욕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 욕망의 충족에 힘을 실어주는 초월자의 개입으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꿈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와서 예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예시적 역할을 하는 꿈은 대체로 욕망 충족을 이끄는 꿈과 겹쳐진다.

이와는 달리 <험이몽서백식전신(驗異夢西伯識前身)>에서 볼 수 있듯, 꿈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욕망이 충족된 과정과 방법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등장인물이 그간 지내오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쳐 지내온 삶의 대목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꿈은 ‘반조적’이며 ‘성찰적’이다. 이때 꿈에는 사람의 욕망이나 계산이 개입되지 않은 축원이나 염원이 깃들여 있다.

조선 후기 야담에서 꿈은 그 서사적 기능 면에서 이렇게 양분되어갔다. 물론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지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욕망과 관련하여 주체가 상이한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주체가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여전히 간절한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성적 꿈이, 주체가 욕망을 이미 성취한 지점에서 그 과정을 되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반조적 꿈이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꿈이란 모티프 안에서도 조선후기 정신세계의 분화가 반영되어 갔다고 하겠다.

VI. 결론

본고는 야담에 자주 나타나는 꿈 모티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서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폈다.

꿈은 개인의 욕망이나 의지를 담는다. 꿈속에서 주체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거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꿈은 초월적 존재의 힘이나 운명과도 관련된다. 꿈은 현실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조차 용납되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현실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인물이 꿈을 빙자하여 곤경을 극복한다. 예언 혹은 예시에 해당하는 꿈은 사건의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시적 꿈과 해몽의 과정은 첫 단계의 상식적이고 비판적인 해석을 재조정하고 재해석하여 반전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 부정적 상황을 낙관적 상황으로 바꾸는 역동적 경험을 하게 한다.

야담에서의 꿈은 서술자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하거나 역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꿈이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적 질서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점은 매우 특별하면서도 소중한 가치이다. 꿈이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게 해주는 양상은 더 다채롭다. 먼저 꿈은 동떨어진 두 공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꿈에서는 현실에서 찾아가기 어려운 공간도 쉽게 찾아가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보통 사람이 혼령의 세계를 경험하거나 혼령을 만나는 것도 꿈이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해주기에 가능한 일이다. 꿈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혼령이 소통하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야담 서사에서 꿈은 욕망 및 반조와 관련하여 두 개의 상충된 길을 보

여준다. 정효준 이야기인 <현초몽용만상폭(現宵夢龍滿裳幅)>에서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욕망 실현을 위한 장치이다. 꿈은 현실적 욕망을 실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면서 욕망 실현의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꿈은 현실에서 불가능할 욕망을 성취시켜줌으로써 서사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꿈은 없던 욕망의 대상을 존재하게 만들어 꿈을 꾸는 사람의 행복을 증대시켜주는 ‘형성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꿈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와서 예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예시적 역할을 하는 꿈은 대체로 욕망 충족을 이끄는 꿈과 겹쳐진다.

이와는 달리 <험이몽서백식전신(驗異夢西伯識前身)>에서 볼 수 있듯, 꿈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욕망이 충족된 과정과 방법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등장인물이 그간 지내오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앞이지만 어쩔 수 없이 스쳐 지나온 삶의 대목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꿈은 ‘반조적’이며 ‘성찰적’이다. 이때 꿈에는 사람의 욕망이나 계산이 개입되지 않은 축원이나 염원이 깃들여 있다.

조선 후기 야담에서 꿈은 그 서사적 기능 면에서 이렇게 양분되어갔다. 물론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지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욕망과 관련하여 주체가 상이한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주체가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여전히 간절한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성적 꿈이, 주체가 욕망을 이미 성취한 지점에서 그 과정을 되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반조적 꿈이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꿈이란 모티프 안에서도 조선후기 정신세계의 분화가 반영되어 갔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서유영, 김종권 교주, 『금계필담』, 명문당, 1985, 1-332면.
- 신돈복, 『학산한언』, 『한국문헌설화전집』 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1, 289-491면.
- 유몽인, 『어우야담 원문』, 돌베개, 2006, 1-450면.
- 이원명, 『원본 동야회집』 상, 하, 보고서, 1992, 1-877면.
- 이희평, 『계서야담』, 『한국문헌설화전집』1, 태학사, 1981, 1-518면.
- 이희평, 유하수 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1-771면.
- 『기문총화』,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6, 계명문화사, 1987
- 『청구야담』 상, 하, 아세아문화사, 1988, 1-663면, 1-687면.
- 『청야담수』,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4, 계명문화사, 1987, 1-636면.
- 姜渾, 鄭眉壽 碑銘, 『한국역대인물전집성』 4, 민창문화사, 1980, 3772-1773면.
- 김미령, 환상공간으로서의 “꿈”의 기능, 『인문학연구』 3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5, 113-136면.
- 배병균, 환몽소설(幻夢小說)의 한 양상 - 『료재지이(聊齋志異)』중의 꿈, 『인문학지』 36,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101-122면.
- 이강옥, 꿈 수행과 문학치료 프로그램, 문학치료연구 제2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47-88면.
- 이강옥,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2006, 1-635면.
- 이강옥, 야담 연구의 대중화 방안,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12, 289-319면.
- 정솔미, 『청구야담』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106면.
-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이환 편역, 돌을 새김, 2011, 1-296면.
-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 꿈의 심리학』, 도서출판 부글북스, 2009,

1-258면.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규환 옮김, 『정신분석입문』, 육문사, 2012, 1-653면.



<Abstract>

The Realization of Desire and Retrospection in the Dream of Yadam

Lee, Kang-Ok*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dream motifs frequently incorporated in Yadam and their meanings and functions in the narrative context of Yadam.

Dreams reflect individual's desire and will. Subjects realize their desire and carry out their will in dream. On the other hand, dreams are connected to supernatural power and fate. Dreams provide justifications to inexcusable situations, which allows people who committed unacceptable actions in reality to be extricated from their troubles.

Dream has a foreshadowing and suggestive function as well. Thus dream plays a significant role in unfolding and solving problems in Yadam's narrative. Suggestive dreams and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m allow readers to have powerful experience of Yadam's narrative. Dreams in Yadam enable the narrator to transcend or reverse time. Dreams allow the narrator to transcend spatial limit in various ways. Dreams make it possible to present two separate places simultaneously. Thus people can experience the spiritual world and encounter the spiritual beings in the world of Yadam. Dreams present the place and opportunity that the living and the dead can meet and

* Yeungnam University

communicate.

Dreams reveal contradiction in the narrative of Yadam. In *Hyunchomongyongmansangpok*(現宵夢籠滿裳幅) dream is a conventional device of realizing desire. Dream invigorates the narrative by having impossible desire fulfilled. Dream performs a formative function which intensifies the dreamer's happiness by materializing the object of desire. On the other hand, in *Humyimongsubbaksikjunsin*(驗異夢西伯識前身) dream exposes the secrets in the process and method of fulfilling desire to the characters. Here dream is retrospective and introspective, and represents people's blessings and longing without desire and calculation.

Dream's two distinctive functions reflect subject's contradictory attitude toward desire. Formative dream functions most evidently when the subject still yearns for realizing his desire. Retrospective dream appears when the subject already achieved his desire and could afford to reflect on the process.

Key Words : dream. Yadam. desire. supernatural. fate. time. spatial limit. narrative. formative. retrospective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